

태국의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08. 6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6
IV. 국제신인도	8
V. 우리나라와의 관계	10
VI. 종합의견	10

태국

I. 일반개황

면적	514천 Km ²	GDP	2,458억 달러(2007년)
인구	66.50백만 명(2007년)	1인당 GDP	3,697달러(2007년)
정치체제	입헌군주하의 내각책임제	통화단위	Baht(Bt)
대외정책	친서방 중립노선	환율(달러당)	34.52(2007년 말)

- 태국은 말레이 반도에 위치해 있고 고온다습한 아열대성의 기후를 보이며 우리나라의 약 2.3배에 달하는 국토면적과 6,650만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음.
- 국민의 약 81.5%를 차지하는 타이족 외에 화교(13.1%), 말레이족(2.9%) 등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태국 국민의 95%가 불교도(소승불교)임.
- 아세안의 주요 국가인 태국은 전자산업 중심의 제조업과 관광 등 서비스업이 발달하였으며, 텅스텐, 주석, 고무 및 천연가스 등 천연자원도 풍부함.

II. 경제 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e
경제성장률	7.1	6.3	4.5	5.1	4.8
재정수지 / GDP	-0.3	0.0	0.3	1.2	-2.4
소비자물가상승률	1.8	2.8	4.5	4.6	2.2

자료 : IFS, EIU

□ 경제성장세 다소 둔화

- 태국 경제는 수출 호조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민간 투자 및 소비 부진, 고유가 지속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음.
- 2007년에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 관광업 등 주력 산업이 호조세를 보였으나, 정국 불안에 따른 내수경기 부진에 따라 4.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08년에도 이러한 경제 여건이 지속되어 4.8%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됨.

□ 안정세를 보이던 물가도 상승 전망

- 물가는 2005~06년 중 국제유가 상승, 바트화 약세 등으로 인해 4%대 중반까지 상승하였으나, 2007년에는 경제성장 둔화, 바트화 강세에 따른 수입단가 하락 등으로 2.2% 수준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낮아졌음.
- 그러나 국제유가의 급상승과 2008년 4월중 쌀 가격이 전년동월대비 19.6%나 상승하는 등 농산품 가격이 급증하면서 2008년중의 물가는 6%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됨.

□ 재정수지 부담 증가

- 태국의 재정수지는 정부의 긴축정책의 효과로 인해 균형을 유지해 왔으나, 쿠데타 이후 집권한 술라웃 과도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확대 재정정책 기조를 추진함에 따라 2007년중 재정수지는 2% 수준의 적자로 반전되었으며, 2008년에는 3%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국내 투자 감소세 지속

- 2005년까지 꾸준히 상승해 온 GDP 대비 국내총투자는 2006년 9월 쿠데타와 정국 불안에 따른 투자환경 악화 및 투자심리 위축으로 인해 하락세로 반전되었으나, 2008년에는 현 정부의 확대 재정정책 추진으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국내총생산/GDP : 27.9%(2006) => 26.8%(2007) => 28.1%(2008)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정국 불안, 고유가, 산업 편중성 등 경제 취약 요소 상존

- 태국 경제의 취약성은 크게 (1) 정치 불안에서 오는 민간소비, 투자심리 위축, (2) 고유가 현상에 대한 취약성, (3) 미, 일, 중 등 일부 수출대상국에 대한 의존도 심화, (4) 전자산업 및 부품산업에 대한 편중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정국 안정이 태국 경제회복의 최대 변수로 불안한 정치상황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이 해결해야 할 과제임.

나. 성장 잠재력

□ 포스트 브릭스 국가로 주목

- 태국은 ASEAN의 중심국가이자 포스트 브릭스 국가로 주목받고 있으며, 튼튼한 내수시장과 전자산업 중심의 비교적 건설한 제조업 기반을 갖추고 있어 성장잠재력은 풍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 태국은 10개 ASEAN 회원국 중 인구 4위(67백만명), GDP 규모 2위(2,458억달러), 수출 3위(1,510억 달러) 등 대부분 경제사회 지표에서 상위권 기록
- 이러한 이유로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등 많은 국가들의 태국 진출을 추진중이며, 이미 호주, 일본, 중국 등과는 FTA를 체결하였음. 또한 미국, 한국 등과 FTA 협상이 진행중이어서, 향후 태국의 외국인 투자 및 교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다. 정책 성과

□ 수출주도형 경제정책 주요

- 태국은 농업기반의 전통적 경제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1970년대 이후 대외 지향적인 수출주도의 경제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시장개방, 민영화, 규제완화 등 적극적인 개발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제성장을 도모해 왔음.

□ 잦은 정책 변경이 투자자들의 혼선 초래

- 2006년 쿠데타 이후 태국 과도 정부는 바트화 강세에 따른 환율문제 해결,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외국인투자 지분제한과 관련된 법개정(Foreign Business Act) 등 다양한 경제정책을 제시하였지만, 아직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잦은 정책 변경으로 투자자들의 혼선을 가져오고 있음.
- 2007년 12월 총선 승리로 집권한 현 정부도 경기부양을 위한 확대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미미함.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e
경 상 수 지	4,772	2,759	-7,923	2,175	15,085
경 상 수 지 / GDP	3.3	1.7	-4.5	1.1	6.1
상 품 수 지	11,175	10,785	3,204	13,936	26,063
수 출	78,083	94,979	109,199	127,929	151,044
수 입	66,909	84,194	105,995	113,993	124,981
외 환 보 유 액	40,965	48,498	50,502	65,147	85,110
총 외 채 잔 액	51,793	51,292	51,625	55,233	58,500
총 외 채 잔 액 / GDP	36.2	31.7	29.2	26.8	23.8
D . S . R .	15.5	10.6	13.6	9.4	7.8

자료 : IFS, EIU

□ 수출은 성장세 유지

- 태국은 상품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2%에 육박할 정도로 대외거래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서 주력 수출 분야는 농업, 수산업, 제조업 등임.

* 수출 규모는 ASEAN 회원국 중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 이어 3위

- 농업과 제조업(전자제품)의 수출 호조로 인해 2005년에 최초로 1,000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며, 금년에는 수출 규모가 1,51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

□ 경상수지는 흑자규모 확대

- 경상수지는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5년에만 쓰나미로 인한 관광업 부진(서비스 수지 적자폭 확대) 등으로 GDP 대비 4.5%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수출증대로 흑자로 반전되었음.

- 2007년중 수출 증가, 관광업 호조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GDP 대

비 6.1%로 크게 확대되었으나, 2008년에는 수입확대로 흑자 규모가 축소 될 것으로 보임.

□ 외환보유액 증가세 지속

- 태국의 2007년도 외환보유액은 전년대비 20% 이상 상승한 약 875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음. 이는 수출 및 관광업 호조, FDI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이에 따라 외환보유액/월평균수입액(개월)도 2006년의 4.9보다 개선된 5.9를 기록하였음.

□ 외채관련 지표 개선중

- 태국의 신중한 외채관리정책에 힘입어 2001년 이후 외채관련 지표가 지속적으로 개선추세에 있음. 2007년말 현재 총외채규모는 GDP의 24%인 585억 달러이며, D.S.R도 7.8%에 불과함.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동향

□ 탁신 전 총리 계열의 PPP, 총선 승리 후 연립정부 구성

- 2006년 9월 군부 쿠데타 이후 처음 실시된 작년 12월 23일 총선에서 탁신 전 총리 계열의 PPP당이 전체 480개 하원의석 가운데 233석을 획득하고 5개의 군소정당과 연합을 합의하여 총 315석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였음. 이후 사막 순다라벳 PPP총재가 총리로 취임하며 군부 쿠데타 발생 1년 5개월 만에 민간정부가 취임하였음.
- 이번 총선에서 농민, 도시빈민층 중심의 탁신지지 세력들은 과거 탁신의 포퓰리즘적 정책에 대한 여전한 지지를 표출하였음. 또한 효과적인 경제정책의 집행에 실패한 군부에 대한 실망감이 탁신에 대한 지지로 연결되며 총선에서 탁신 계열의 승리로 이어졌음.

□ 탁신, 총선승리를 기반으로 해외망명 17개월 만에 귀국

- 군부 쿠데타에 의해 권좌에서 물러나 해외에서 망명생활을 해오던 탁신 전 총리가 17개월만인 지난 2월 28일 귀국했음. 탁신은 귀국 후 정계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지만, 그의 측근들이 의회와 정부 요직을 장악하고 있어 향후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임.
- 현재 탁신은 정치활동 금지명령을 받은 상태이고, 국유지 불법매입 혐의와 주식 은닉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며 두 가지 혐의 모두 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됨.

□ 집권 정당연합, 신헌법 개정 추진

- PPP를 중심으로 하는 집권 정당연합은 과거 과도정부 하에서 제정된 신헌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추진 중에 있음. 이는 집권 정당연합 중 PPP를 포함한 3개 정당이 선거 부정을 이유로 해체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인데, 현행 헌법 237조는 정당 간부가 선거부정을 저질렀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이 있으면 사법부가 소속 정당의 해체를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정당연합은 과거 탁신의 부정부패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자산조사위원회'의 설립 근거가 담긴 헌법 309조의 삭제도 원하고 있음.

2. 사회동향

□ 야당세력, 집권정부의 신헌법 개정 반대하는 시위 진행

- 민주당과 일부 사회단체들은 PPP가 정당 해체를 막고 탁신 전 총리와 측근들의 정치적 사면 및 부활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개헌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거리시위를 진행하기도 하였음.
- 이에 향후 헌법 개정을 둘러싼 친정부 세력과 반대세력간의 갈등이 지속되며 대규모 시위와 폭력사태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 쿠데타 발생 가능성 있지만 가능성은 낮아

- 정부 세력과 반대세력간의 갈등이 지속되어 대규모 시위사태가 발생하고 정치적 불안감이 높아지게 되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군이 개입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 군부가 2006년 9월 쿠데타 당시의 높은 대중 지지율을 얻기는 힘들 것이라는 점에서 쿠데타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당분간 정치적, 사회적으로 불안한 상황 지속될 듯

- 신헌법 개정과 탁신의 정치적 복귀를 놓고 친정부 세력과 반대세력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규모 시위와 폭력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등 한동안 태국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불안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3. 국제관계

□ 미국과 FTA 협상 시도

- 태국 정부는 미국과의 FTA 협상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음. 과거 탁신 총리 집권시 진행되었던 양국간의 협상은 이후 태국이 정치적으로 불안해지며 잠정적으로 중단되었음.
- 최근 태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상 의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2008년 4월 태국을 지적재산권 침해 우선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태국과의 협상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어 단기간 내에 협상이 진전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IV. 국제신인도

1. 외채 상환 태도

□ 대외지급능력 양호

-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외채상환, 신규 차입 감소 등으로 외채규모는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환보유고도 경상수지 흑자기조 및 외국인투자 유입 증가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또한 D.S.R. 및 단기외채/GDP 수준 등을 감안할 때, 대외지급능력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됨.

2. 국제시장평가

□ 국가신용등급 양호

- S&P, 무디스, Fitch 등 세계 3대 민간신용기관으로부터 모두 투자적격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S&P, Fitch는 2006년 9월 쿠데타 발발 직후 신용등급을 BBB+로 유지하면서 단기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향후 전망을 Negative로 하향 조정한 바 있으나, 2006년 10월 양기관 모두 향후 전망을 쿠데타 이전과 동일한 Stable로 상향조정하였음.
- 한편, S&P는 2007년 7월 건전한 재정 및 외채 관리, 수출 증가 추세 등을 태국 경제의 장점으로 평가하며 신용등급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

□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 순위

- OECD : 3등급 (06. 4) → 3등급 (07. 4) → 3등급(08. 4)
- ICRG : 97/140 (07. 4) → 89/140 (07. 10) → 82/140(08. 4)
- Euromoney : 61/185 (07. 3) → 60/185 (07. 9) → 57/185 (08. 3)
- I.I : 54/174 (07. 3) → 54/174 (07. 9) → 54/174(08. 3)
- Moody's : Baa1 (Stable, 03. 11)
- S&P : BBB+(Stable, 04.8) → BBB+(Negative, 06.9) → BBB+(Stable, 06.10)
- Fitch : BBB+(Stable, 05.1) → BBB+(Negative, 06.9) → BBB+(Stable, 06.10)

3. 주요 ECA의 지원태도

□ 주요 ECA의 인수 태도

- 미국 수은 : 최고 부보율 적용
- 영국 ECGD : 최고 부보율 적용
- 독일 Hermes : 단기 전액인수가능
- 네덜란드 Atradius : 단기 인수가능

V. 우리나라와의 관계

□ 전통적 우방국으로 경제협력에서도 긴밀한 관계 유지

- 전통적인 우방관계인 양국은 최근 들어 경제협력 측면에서도 더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교역은 2007년에는 수출 45억, 수입 38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 태국 해외직접투자도 2008년 3월말 현재 제조업과 건설업 중심으로 1,867건, 1,021백만 달러를 기록 중임.
- * 주요 수출 품목 : 전자전기제품, 철강, 석유화학제품 등
- * 주요 수입 품목 : 전자부품, 자동차부품, 고무, 설탕 등

(단위: 천달러)

구 분	2005	2006	2007	주요 품목
수 출	3,380,804	4,246,113	4,488,400	전기전자제품, 철강, 석유화학제품
수 입	2,688,762	3,328,403	3,769,191	전자부품, 산업용 전자제품

VI. 종합 의견

- 태국 경제는 수출호조세에도 불구하고 민간 소비 및 투자 위축 등 내수 경기 부진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어 2007년중 4.8%의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금년에도 이러한 경제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탁신 전총리의 실정으로 인한 혼란과 군부의 쿠데타로 정치, 사회적 상황이 크게 불안하였으나, 2007년 12월 실시된 총선에서 탁신 계열의 PPP당이 승리하고 사막 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민선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음.

그러나 사막 정부가 정당 간부가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한 경우 해당 정당을 해체 할 수 있도록 한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커서 정치적 불안 요소가 되고 있음.

- 내수 경기 침체와 잦은 경제정책 변경으로 경기 회복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이나,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관광업이 회복되는 등 경제적 기반이 비교적 건실하며, 외채 여건도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음.